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부:** Sight and Sound 성극 "Jesus" 관람
- 일정: 3/31(토) 오전 11시 공연. 아침 6시 교회 출발합니다.
- **운영위원회:** 오늘 친교 후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 3월30일 금요기도회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3월30일(금) 저녁 8시 분당)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분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분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분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3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최경자 집사 / 시 118:1-2, 19-29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 김경화 집사

다음 주 친교: 이미경 집사 / 하영미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14:16-18, 25-26; 15:26-27; 16:7-15**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7): 보혜사**”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67장 (통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119:9-16 ----- 임수연 집사
 찬양(Choir) -----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14:16-18, 25-26; 15:26-27; 16:7-15**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7): 보혜사**”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187장 (통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풍성한 생명(6): 사랑 – 새 계명, 친구와 같이 한 명에 (요13:23-35; 15:9-17)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던 것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계명의 핵심인데 그것을 잃었다가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유일하고 한 분이신 여호와,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신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며 닮아가기 보다는 문자로 된 율법을 지킨 것이 자랑이 되고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벗어버렸습니다. 소용없다고 냉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주기까지.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계명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원하고 또 자랑하지만 사랑이신 그 분의 사랑 없이는 세상의 사랑은 불안정합니다. 오히려 사랑할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포기합니다. 서로 주고 받을만한 정도의 사랑을, 그 정도의 사람들과 나누며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선 세상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곧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를 위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아주고 받아줄 것을 계산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새 사랑입니다.

시편에는 “내가 사랑했는데 오히려 원수로 갚았다”는 억울한 호소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심정을 다 겪어 아십니다. 시인들은 그 원수들도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께선 그 저주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의로움을 밝혀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께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 언필로 적당히 쓰다 지울 정도로 흉내낸 사랑이 아니라 못으로 손에, 창으로 심장에 새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서로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께서 함께 명예를 메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키는데로 할 종이 아니라 –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 마음을 알아줄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할 때는 억울할 수도, 부담스러울 수도,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 명예를 멜 때, 마치 어깨동무한 친구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아니 그보다 더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그보다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가벼운 짐이요 쉬운 명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명예를 메고 그 계명에 따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함께 어깨동무한 동역자입니다. 나아가 그 명예를 함께 맨 친구들을 봅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성이었는데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같이 실망했을 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길벗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 진 명예일 때 힘들고 수고롭습니다. 함께 진 것을 알면 쉬워집니다.

나도 누군가의 친구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사랑이심을 다시 보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증거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품 속에서 사랑을 나누시던 독생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요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뤄지며 세상에 증거가 됩니다(요일 4:12).